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Optimism and Family-control on Their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박인전 · 최외선** · 김애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 영남대학교 미술치료학과

Park, In-Jeon · Choi, Wae-Sun · Kim, Ae-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 Dept. of Family and Housing, Yeungnam University ·

Dep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optimism and family-control on their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74 undergraduates from 4 universities in G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ver. 12.0) program, and frequency and percentil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were utiliz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undergraduate's degree of optimism and family-control, and their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were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In addition, the undergraduate's optimism and family-control were differed according to their 'existence and/or nonexistence of religion', and their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existence and/or nonexistence of religion', and 'existence and/or nonexistence of living together with their grandparents'. It was also found that the undergraduate'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ir family-control, whereas their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was indirectly influenced by their optimism via family-control.

Key Words : undergraduate's optimism, family-control,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타인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시기에 사람들은 항상 가족을 주된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 지원체계로 기대하여 왔다(Marks & Lambert, 1997). 하지만 70년대를 전후하여 급속도로 전개되어온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외형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팽배,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이 전통적으로 기능해오던 역할의 상당부분이 사회로 이양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과 가족규모 축소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한 개인이

생애과정 중에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였으며(Brody, 1981), 노인부양 형태 및 의식변화도 초래하였다(홍달아기, 하근영, 2002).

실제적으로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전국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부양의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15세 이상의 응답자 중 '부모는 능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한다'고 응답한 비율(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부장적인 확대가족제도에서 당연시 되어오던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부양의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 4명 중 1명(26%)은 '부모 스스로 살아야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가족이 가진 노인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2002년 자료(9.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연합뉴스, 2005.2.17). 이렇듯 가족이 가진 노인

* 이 논문은 2004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 000-A-105-421)

** Corresponding author: Choi, Wae-Sun

Tel: 053) 810-2862, Fax: 053) 810-4667

E-mail: chois@yumail.ac.kr

부양 기능과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공적부양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이 거의 가족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노인부양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실제 부양행동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김송애, 조병은, 199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내면화된 가치관과 규범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노인부양의식은 실제적인 노인부양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노인부양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노인부양의식의 고취는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근래에 들어와 노부모부양의 의미를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옥경희, 1996)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Cohen과 Gans(1978)는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가 의무감에서 부양책임을 맡는 일이라 주장한 바 있다. 자녀가 의무감에서 노부모 부양을 자처하게 될 때, 자녀로서의 의무감은 죄의식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노부모 부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력이 감소되거나 심지어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관계적 측면에서는 의무감을 갖는 상대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된다(Berman, 1987). 따라서 자녀들이 의무감에서 벗어나 성숙함에서 노인부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일정 가족원이 희생되거나 한 개인의 돌봄을 위해 전 가족원의 욕구나 필요가 무시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옥경희, 1996). 다시 말해, 부양자들이 노인부양을 보다 성숙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자 자신의 개인적 능력 향상과 성숙이 선행되어야 하며(이성희, 이승미, 2003), 부양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적 자원을 발달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심리적 자원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한 Hobfoll(2002)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효능감, 낙관성, 자기존중감, 목표 추구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들을 획득,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덜 직면하게 되고, 직면하였을 때에도 자원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자원들 가운데 낙관성은 지속적인 목표행동을 이끌어 내어 개인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Hobfoll, 2002)는 점에서, 노인부양자 자신의 성숙과 개인적 향상을 도와 발달 주기 상 필연적으로 겪게 될 노인부양이라는 가족 내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뜻하는 용어로(Scheier & Carver, 1992),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삶에 대한 성격적 특성이며(김경희, 2000),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에 아주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가진 낙관적인 일반화된 기대감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Carver, Kus, & Scheier, 1994). 따라서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Chang, Sanna, & Yang, 2003)을 하게 되어,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덜 경험한다(Brissette et al., 2002)고 한다. Scheier와 Carver(1985)에 의하면 낙관주의 성격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삶에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조절능력이 있으며,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Seligman(1990)은 당면한 역경에 대해 긍정적 생각이나 낙관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 측면에 매달리는 사람에 비해 역경을 보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Strutton과 Lumpkin(1992)은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해결대처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가족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인 노인부양(Brody, 1985)에 있어서, 낙관성은 노인부양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대처결과인 심리적·신체적 안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부양에 있어 낙관성이 개인의 적응을 돕는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노인부양이라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노인부양의식 역시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던 전통적인 인지이론 관점에서 벗어나, 최근 인간이 가진 신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게 되면서 신념체계가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Compton, 2004). 이러한 신념들은 구체적으로 개인이 갖는 통제 신념과 실존적 신념으로 제시되는데, 여기서의 통제 신념이란 개인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 관한 것으로(전혜성, 2007), Antonovsky(1987)가 제시한 통제감(sense of coherence)과 그 개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제감을 만드는 기초는 개인과 가족의 신념체계이며, 가족은 공유한 신념체계를 통해 사건과 행동을 해석하게 되는(이선애, 2004) 것이다.

Antonovsky(1987)는 개인이 혼란과 변화에 직면하게 될 때, 건강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통제감이라는 개념을 연구하였다. 통제감은 내·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이 구조화되고, 예측적·설명적이며, 자신이 보유한 자원들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하고, 요구들은 집중적으로 관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개인이 느끼는 역동적인 확신으로 정의된다(Antonovsky, 1987). 이후 Antonovsky와 Sourani(1988)는 개인통제감의 개념을 가족단위에 적용하여 가족통제감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가족통제감은 가족생활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인지된 통제감을 뜻한다. 이는 역동적으로 가족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위기와 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이 되며, 가족적응에 대한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송자경, 2003). 다시 말해, 통제감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신념이 개인의 태도와 의도,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짓게 된다(Pita de Melo, 1981)는 측면에서, 가족통제감은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긴장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자원들을 통상적으로 일반적 저항자원(*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 -GRRs*)이라 한다. 여기에는 지식과 기능, 자아의 강도, 대처전략의 통어력,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집단에의 위탁, 문화적 안정성, 철학 또는 종교로부터의 가치와 믿음의 안정적 체계, 건강에 대한 예방적 인식, 태생적 강점, 또는 구성된 강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반적 저항자원을 유용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은 통제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송자경, 2003).

따라서 시련과 어려움 등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인 낙관적 성격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저항자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관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이 가진 저항자원을 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Scheier & Carver, 1991), 낙관주의적 성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 및 가족 통제감 역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Helton 등(2000)은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 간에 정서적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낙관적인 사람들보다 자신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진 낙관성이 가족 통제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개인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부양에 대한 연구들은 부양 개념을 협의의 수발로 한정하고 여성부양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규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양 스트레스와 같은 미시적 과정 탐색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경혜, 윤성은,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의식을 개인이 노인부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이라 정의하고, 경제적·정서적·서비스적 측면에서 각각도로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향후 가족과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계층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낙관성 관련 연구는 낙관성 개념에 대한 연구(Scheier & Carver, 1985; Seligman, 1990)나 낙관성이 신체적·심리적 안녕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김민정, 2006; 이지연, 2006; Peterson, 2000)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족통제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만성질환자 가족 및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의 하위개념으로 포함시켜 연구(김미옥, 2001; 오승아, 2001; 이선애, 2004)되어오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개인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이들 변인들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인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뿐 아니라 노인부양체계 재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궁극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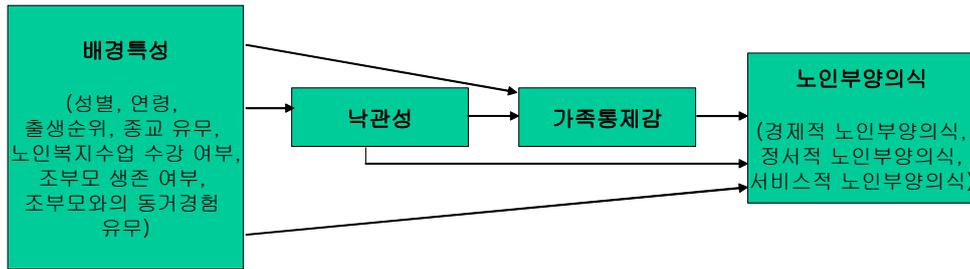
- 1) 대학생의 낙관성 및 가족통제감과 노인부양의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 2) 대학생의 낙관성 및 가족통제감과 노인부양의식은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3) 대학생의 배경특성 및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노인부양의식 전체, 노인부양의식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 및 가족통제감과 노인부양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연구대상자의 배경특성 N=374

변인	내용	N	%
성별	남	131	35.0
	여	243	65.0
연령	만 20세 이하	185	49.6
	만 21세 이상	188	50.4
출생순위	첫째	176	47.1
	중간	40	10.7
	막내	140	37.4
	외동	18	4.8
종교 유무	있다	224	60.2
	없다	148	39.8
노인복지수업 수강 여부	있다	81	21.7
	없다	292	78.3
조부모 생존 여부	있다	260	69.5
	없다	114	30.5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있다	223	59.6
	없다	151	40.4

무응답의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되어 빈도수간에 차이가 있음.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4개 종합대학교 3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경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연구대상자 가운데 재학생, 복학생 및 산업체 학생 등이 많은 관계로 연령 편차가 심하여 빈도수를 고려하여 만 20세 이하와 만 21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측정도구

1) 배경변인

가족과 사회 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 내의 모든 신념은 모든 개인에게 반드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Busell & Reiss, 1993), 출생순위나 성 등으로 인해 상이한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김안자, 2005)는 측면

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종교 유무를 배경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이외에 본 연구가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노인부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즉 노인복지수업 수강 여부, 조부모의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를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김영주 외, 2004; 조성희, 2003)에 의하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노인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복지수업 수강 여부 등의 변인이 노인에 대한 태도(서병숙, 김수현, 1999; 이영숙, 박경란, 2002)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Carver와 Bridges (1994)의 생활지향검사 개정판(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번안하여 사용한 조하나(2003)의 낙관성 척도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OT-R은 기질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질적 낙관성이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편적 기대감을 의미한다. 기질적 낙관성은 심리학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낙관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져 왔으므로(Norem & Chang, 2000),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 낙관성을 통해 낙관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낙관성의 반대는 낙관성의 부재이지 비관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Marshall et al., 1992), 낙관성과 비관성을 나누어 측정하지 않고 낙관성만을 알아보고자 한다. 낙관성 척도의 총 문항 수는 10문항으로, 이 중 긍정적 진술문항이 3문항, 부정적 진술문항 3문항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채점한다. 그리고 나머지 4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구성된 것이므로 채점에서 제외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낙관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77로 나타났다.

3) 가족통제감

가족통제감을 알아보기 위해 Antonovsky와 Sourani (1988)가 개발한 FSOC(Family Sense Of Coherence)를 김미옥(2001)이 번안하여 사용한 가족통제감 척도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통제감 척도의 총 문항 수는 18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한다. 가족통제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위기 상황과 변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가족통제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86으로 나타났다.

4)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 가운데 경제적 부양의식과 서비스적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Tuckman과 Lorge(1953)의 척도를 기본으로 김태현(1981)이 사용하였던 20개의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정서적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종숙(1986)이 작성한 항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노인부양의식 척도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10문항), 정서적 노인부양의식(10문항),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10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부양의식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93,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84,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82,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4개 종합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126부를 제외한 총 37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상관관

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관성의 평균은 3.67, 가족통제감의 평균은 3.49로 나타나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수준이 보통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 기대감과 가족의 위기상황과 변화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부양의식의 평균은 3.92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이 보통 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M=4.05)이 하위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노인부양의식(M=3.96), 정서적 노인부양의식(M=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부양의식 중 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로 생기는 노인의 고독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며 인격적 대우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서적 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N=374

변인	M	SD	
낙관성	3.67	.63	
가족통제감	3.49	.51	
노인부양의식	경제적	3.96	.46
	정서적	3.75	.48
	서비스적	4.05	.51
	전체	3.92	.42

2. 대학생의 배경특성에 따른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이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특히 대학생의 배경특성 중 출생순위의 경우, 중간과 외동이의 사례수가 첫째와 막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차이검증 분석에서 이들을 제외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낙관성은 종교 유무($t=2.76,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에 비해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의 가족통제감 역시 종교 유무($t=2.92, 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보다 더 높은 가족통제감을 가지고 있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이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인부양의식은 대학생의 종교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 유무의 경우, 노인부양의식 전체($t=2.22, p<.05$)와 경제적 노인부양의식($t=2.82,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보다 전반적인 노인부양의식 뿐만 아니라 경

제적 노인부양의식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는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t=-2.07,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보다 서비스적인 노인부양에서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배경특성은 외생변수로,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은 내생변수로, 노인부양의식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배경특성에 따른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특성(종교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만을 경로분석에서 외생변수로 사용하였다. 경로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명목 변수(종교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는 연속변수와 함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가변수 처리하였다. 그리고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값을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값은 .761~1.000이었고, 분산팽창요

<표 3> 대학생의 배경특성에 따른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

변인	구분	낙관성		가족통제감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 전체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t값	M(SD)	t값
성별	남	3.64(.66)	-.68	3.50(.47)	.19	4.00(.50)	1.52	3.76(.50)	.41	4.07(.54)	.60	3.95(.46)	.94
	여	3.69(.62)		3.49(.52)		3.93(.44)		3.74(.47)		4.04(.49)		3.91(.40)	
연령	만 20세 이하	3.61(.67)	-1.74	3.45(.53)	-1.43	3.95(.47)	-.32	3.75(.49)	.09	4.08(.53)	.87	3.93(.43)	.25
	만 21세 이상	3.72(.59)		3.53(.48)		3.96(.45)		3.75(.47)		4.03(.49)		3.92(.41)	
출생순위	첫째	3.65(.61)	-.52	3.46(.49)	-1.61	3.94(.47)	-1.52	3.73(.51)	-1.34	4.02(.53)	-1.51	3.90(.45)	-1.67
	막내	3.69(.61)		3.55(.52)		4.02(.46)		3.80(.46)		4.11(.51)		3.98(.41)	
종교유무	있다	3.74(.60)	2.76**	3.56(.52)	2.92**	4.01(.46)	2.82**	3.79(.48)	1.82	4.08(.50)	1.22	3.96(.41)	2.22*
	없다	3.56(.66)		3.40(.47)		3.87(.44)		3.69(.47)		4.01(.51)		3.86(.43)	
노인복지수감여부	있다	3.75(.60)	1.36	3.56(.46)	1.28	3.96(.47)	.06	3.77(.46)	.32	4.06(.52)	.13	3.93(.42)	.18
	없다	3.65(.64)		3.48(.52)		3.95(.46)		3.75(.49)		4.05(.51)		3.92(.42)	
조부모 생존여부	있다	3.68(.64)	.39	3.51(.52)	1.20	3.94(.45)	-.97	3.74(.48)	-.67	4.05(.50)	-.41	3.91(.41)	-.76
	없다	3.65(.61)		3.44(.48)		3.99(.49)		3.78(.49)		4.07(.52)		3.95(.45)	
조부모와 동거경험 유무	있다	3.70(.65)	1.25	3.49(.58)	.04	3.93(.47)	-1.54	3.72(.49)	-1.56	4.01(.53)	-2.07*	3.89(.44)	-1.97
	없다	3.62(.61)		3.49(.49)		4.00(.44)		3.80(.46)		4.12(.47)		3.97(.39)	

*p<.05 **p<.01

인은 1.000~1.31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선성 판단을 위한 기준은 공차한계 .10이하, 분산팽창요인 10이상(이학식, 임지훈, 2005)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10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고, 분산팽창요인도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692~2.056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을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별 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의 종교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를 외생변수로 하고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을 내생변수로, 노인부양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낙관성의 경우 종교 유무($\beta=.142, p<.01$)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이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통제감의 경우 낙관성($\beta=.481, p<.001$)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

은 23%였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 가족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부양의식의 경우에는 가족통제감($\beta=.253, p<.001$),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beta=-.109, p<.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1%였다. 즉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도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동거경험이 있는 대학생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의 계수(β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부양의식 모형의 총 효과(TE), 직접 효과(DE), 간접 효과(IE)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통제감($\beta=.253$)은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낙관성($\beta=.122$)은 가족통제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beta=-.109$)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표 4>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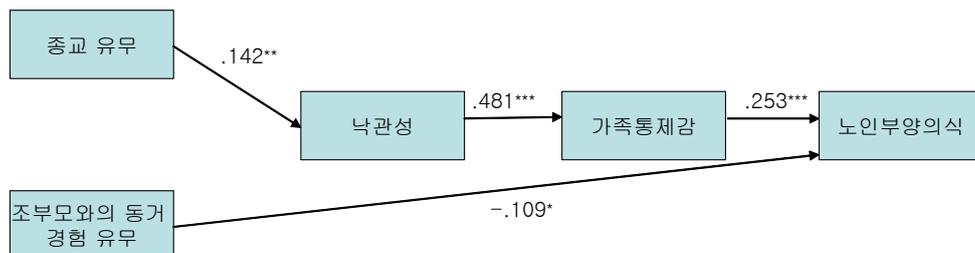
N=374

변인	낙관성			가족통제감			노인부양의식		
	B	β	VIF 계수	B	β	VIF 계수	B	β	VIF 계수
종교 유무 ^a	.184	.142**	1.000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b							-.093	-.109*	1.000
낙관성				.382	.481***	1.000			
가족통제감							.212	.253***	1.000
상수	3.561			2.092			3.233		
F값	7.641**			111.289***			15.009***		
adjusted R ²	.018			.230			.071		
D-W	1.692			2.056			1.916		

* $p<.05$ ** $p<.01$ *** $p<.001$

주: a 종교 유무 : 1=유, 0=무

b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 1=유, 0=무



[그림 2] 노인부양의식 경로모형

<표 5>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변인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109	-.109	
낙관성	.122		.122
가족통제감	.253	.253	

낙관성이 높을수록,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없는 학생이 노인부양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부양의식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의 종교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를 외생변수로 하고,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을 내생변수로, 그리고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의 경우, 낙관성($\beta=.137, p<.05$), 가족통제감($\beta=.129, p<.05$), 종교 유무($\beta=.106,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였다. 즉 낙관적이고, 가족통제감이 높으며,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의 경우에는 가족통제감($\beta=.221, p<.001$)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였다. 다시 말해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로 생기는 노인의 고독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는 등의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의 경우, 가족통제감($\beta=.230, p<.001$),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beta=-.111,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6%였다. 즉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이 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서비스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의 계수(β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직

<표 6> 노인부양의식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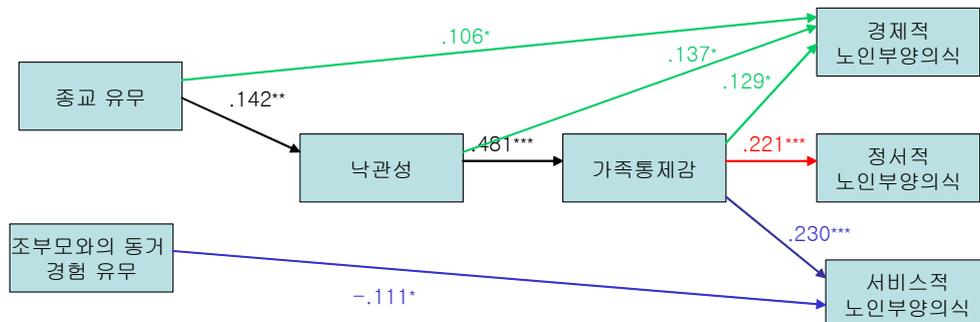
N=374

변인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B	β	VIF 계수	B	β	VIF 계수	B	β	VIF 계수
종교 유무 ^a	.100	.106*	1.030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b							-.115	-.111*	1.000
낙관성	.100	.137*	1.310						
가족통제감	.119	.129*	1.313	.210	.221***	1.000	.232	.230***	1.000
상수	3.113			3.015			3.309		
F 값	9.484***			18.900***			12.713***		
adjusted R ²	.065			.046			.060		
D-W	1.912			1.920			1.986		

* $p<.05$ *** $p<.001$

주: a 종교 유무 : 1=유, 0=무

b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 1=유, 0=무



[그림 3] 노인부양의식 하위요인 경로모형

<표 7> 노인부양의식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변인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종교 유무	.125	.106	.019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111	-.111	
낙관성	.199	.137	.062	.106		.106	.111		.111
가족통제감	.129	.129		.221	.221		.230	.230	

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부양의식 하위요인 모형의 총 효과(TE), 직접 효과(DE), 간접 효과(IE)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의 경우, 낙관성($\beta=.199$)은 직접 효과($\beta=.137$)와 가족통제감을 통한 간접 효과($\beta=.062$)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가족통제감은 직접 효과($\beta=.129$)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종교 유무($\beta=.125$)는 직접 효과($\beta=.106$)와 낙관성을 통한 간접 효과($\beta=.019$)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의 경우, 가족통제감은 직접 효과($\beta=.221$)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낙관성은 가족통제감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beta=.106$)가 유의하였다.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의 경우, 가족통제감은 직접 효과($\beta=.230$)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 역시 직접적인 효과($\beta=-.111$)가 유의하였으며, 낙관성은 가족통제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beta=.111$)가 유의하였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았다. 또한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았으며, 가족통제감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수준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대학생의 배경특성과 낙관성 및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그리고 노인부양의식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은 대학생의 종교 유무에 따라, 그리고 노인부양의식은 대학생의 종교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배경특성은 종교 유무로 나타났으며, 가족통제감에는 낙관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그리고 종교 유무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인부양의식에는 가족통제감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낙관성이 가족통제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의 낙관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을 측정된 결과 낙관성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유성진과 권석만의 연구(2000)와 일치한다. 그리고 가족통제감 역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통제감을 조사한 결과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전유진, 2007)결과와 유사하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중요한 인생의 과도기에서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Aspinwall & Taylor, 1992)결과, 강한 통제감을 갖는 가족들이 낮은 수준의 통제감을 갖는 가족들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Antonovsky & Sourani, 1988)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은 현재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노인부양의식,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부양의식에 비해 노인의 변화된 신체적 조건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시중과 보살핌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서비스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순으로 높게 나타난 조성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4)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는 노후소득지원(49.4%), 취업지원(23.6%), 요양보호서비스(16.8%) 순으로 나타나(중앙일보, 2006.3.3), 현재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안정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양의식이 서비스적 부양의식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노인부양에 대한 세대간 불일치를 보이며, 이러한 노인부양에 대한 세대간 불일치는 부양자와 노인 사이의 부양에 대한 의견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소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불일치는 부양자에게는 심각한 부양스트레스를 유발하고(Sheehan & Nuttall, 1988), 피부양자인 노인에게는 여러 가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Hauser & Beckman, 1984)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러한 심리적 손상은 양자 간의 대인관계 손상을 초래하며(Lazarus & Folkman, 1984), 결국에는 가족부양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Antonucci, 1985)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가진 부양욕구 및 기대와 부양자의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어 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가족부양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배경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은 종교 유무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초월과 영성은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경을 통하여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김미옥, 2001).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자신과 가족이 경험하는 것이 역경이라 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대학생의 낙관성과 종교지향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신건호, 2005)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장애인 형제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형제에게 종교가 있는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서명석, 2005)와 탄력적인 가족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자기 안에 안주하지 않고 친척, 사회적, 지지적 종교체계 및 전문가를 찾는다(신건호, 2005) 역시 종교가 가족통제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인부양의식은 종교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

은 학생보다 전반적인 노인부양의식과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이 더 높았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적이 있는 학생보다 서비스적인 노인부양에서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우미경, 1988; 최정혜, 1997)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김지영(2002)의 연구결과, 조운주, 이숙현(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인부양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성희(2003)의 연구결과, 그리고 확대가족에서 성장한 대학생이 핵가족에서 성장한 대학생에 비해 부모부양의식이 높다는 연구(김영주 외, 2004)결과와는 차이를 보여, 향후 후속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현재는 비록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부모나 조부모 등 노인을 부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과 더불어 이들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겪게 되는 생활양식이나 문화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노인부양에 대한 막연한 이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성된 삼세대 가족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 동거 선호에 대해 조사한 Brody, Johnsen과 Fulcomer(198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과 중년층 여성은 가족이 가까이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손자녀 세대는 대다수가 그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이상을 반영하여 동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조부모와 동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차이, 여가 및 사회생활, 금전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그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

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배경특성은 종교 유무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통제감에는 낙관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총 설명력은 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개인의 낙관적인 성향은 가족 내의 위기 상황이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통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장애에 대한 시각과 가족통제감이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가족통제감이 높다는 김미옥(200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 내의 장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보편적으로 가진 낙관적인 기대감은 가족통제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는 가족통제감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낙관성은 가족통제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대학생의 배경특성 중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통제감과 낙관성 역시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른 노인부양의식과는 달리 경제적 노인부양의식에 낙관성이 영향력의 크기는 작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경제적 부양은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1차적 요인이 되며,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 아니라, 노인들 역시 경제적 부분에 대한 욕구가 강하므로 경제적 부양의식을 고취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낙관성이 강조된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는 경제적 노인부양의식과 정서적 노인부양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 노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경제적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보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서비스적 부양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인들의 주 수입원은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라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노인과 함께 살지 않아도 용돈을 드릴 수 있고, 전화나 잦은 방문을 통해 정서적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노인에게 필요한 신체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서비스적 부양의 경우에는 노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대학생의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정서적 부분보다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보조를 하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통제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통제감은 노인부양의식 전체 뿐 아니라 모든 하위영역 즉,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통제감에 낙관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노인부양 행동을 예언하고 노인부양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노인부양의식에 있어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즉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 등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지만 가족부양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노인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양자 뿐만 아니라 미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숙을 도울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개인의 낙관적인 성격 함양과 가족통제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실시되는 것이 노인부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가설모형 입증을 통해 낙관성이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낙관성은 가족통제감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나타내었다. 즉 낙관성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통제감이라는 매개변인이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낙관성은 대처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낙관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부적응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연구(허보연, 2005)결과를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듯이, 낙관성은 개인이 가진 통제감과의 연관성을 통해 개인의 문제 해결방식이나 적응에 관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낙관성이 비록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가족통제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향후 이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 및 이를 토대로 한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북도 G시 대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미래의 부양세대인 모든 청년층으로 일반화하는 것과 현재 노인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에게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도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양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노인부양에만 국한시켰다는 제한점을 가진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부양의식도 함께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낙관성과 비관성이 독립된 2-요인 구성개념이라는 주장을 근거로(신현숙 외, 2005; Chang et al., 1997; Creed et al., 2002), 향후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낙관성-비관성의 2차원으로 나누어 낙관성-비관성과 가족통제감 및 노인부양의식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포함하여,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그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그 외 다른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이 차이를 보이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가 노인부양의식의 하위영역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가 노인부양의식에 있어 하나의 의미 있는 변수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인과의 동거경험 여부보다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의 질(質)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최근 선행연구(김영주 외, 2004)결과에 비추어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와 더불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의 질적(質的) 측면이 노인부양의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미래의 주 부양자가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의 성숙 차원에서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라는 자원이 노인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높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평가 및 낙관적 견해 등과 같은 강인한 인성 특성이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며(허정무, 1998; Seligman, 1990; Walsh, 2002), 가족통제감 역시 가족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송자경, 2003; Antonovsky & Sourani, 1988)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낙관성 및 가족통제감이 전반적인 가족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나아가 낙관성과 가족통제감이 노인부양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의 낙관성, 가족통제감, 노인부양의식

참 고 문 헌

- 김경희 (2000). 어머니의 미숙아에 대한 고정관념, 낙관주의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8), 111-124.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 (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애, 조병은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안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 공인숙, 이주리, 민하영, 이점숙 (2004).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와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및 피부양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01-709.
- 김중숙 (1986).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2). 대학생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석 (2005).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송자경 (2003). 간질아동과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통정감(Family Coherence)과 가족강인성(Family Hardiness)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건호 (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 불안, 희망과 낙관성이 종교정향발달에 미치는 효과. *종교교육연구*, 20, 147-166.
-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79-97.
- 오승아 (2001).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y Model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 (199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65-276.
- 우미경 (1988).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진, 권석만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특징. *심리*

- 과학, 9(1), 15-37.
-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희, 이성미 (2003). 노부모 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25-36.
- 이영숙, 박경란 (2002).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3), 29-41.
-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5). *SPSS 12.0 매뉴얼*. 서울: 법문사.
- 전유진 (2007).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 부자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성 (2007).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부신념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 (2003).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노인에 대한 인식, 가족기능, 부양의무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 이숙현 (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 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 조하나 (2003).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 (1997).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69.
- 한경혜, 윤성은 (2002). 한국 성인 남녀의 부양지원 제공 실태와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65-7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99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허보연 (2005). 지각된 통제감 수준에 따른 낙관주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무 (1998).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달아기, 하근영 (2002).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107-121.
- 「2005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발표 (2005. 2. 17). 연합뉴스.
- 2005년 한국 가족의 풍경은... (2006. 3. 3). 중앙일보.
- Antonovsky, A. (1987).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 San Francisco: Jossey-Bass.
- Antonovsky, A., &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Antonucci, T. C. (1985). Social support: Theoretical advances, recent findings, and possible issues. In G. Sarason & B.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Boston: Martinus Nijhoff.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Individual differences,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erman, J. J. (1987).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rredeemable obligation and irreplaceable los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0, 21-34.
- Bri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Brody, E. M.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19-29.
-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Brody, E. M., Johnsen, P. T., & Fulcomer, M. C. (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and opinions and preferenc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9(6), 736-746.
- Busell, D., & Reiss, D. (1993). Genetic influences on family proces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arver, C. S., Kus, L. A., & Scheier, M. F. (1994). Effects of good versus bad mood and optimistic versus pessimistic outlook on social acceptance versus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138-151.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33-440.
- Chang, E. C., Sanna, L. J., & Yang, K. M. (2003). Optimism, pessimism,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US and Korea: A test of a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4, 1195-1208.

- Cohen, S. Z., & Gans, B. M. (1978). *The other generation gap: The middle-aged and their aging parents*.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
- Compton, W. C. (2004).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Wadsworth Publishing.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42-61.
- Hauser, B. B., & Beckman, S. L. (1984). Aging parent/mature 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295-299.
- Helton, W. S., Dember, W. N., Warm, J. S., & Matthews, G. (2000). Optimism, pessimism, and false failure feedback : Effects on vigilance performance. *Current Psychology, 18*, 311-322.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 and Adap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307-324.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Marks, N. F., & Lambert, J. D. (1997). Family caregiving: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NSFH Working Paper No.78*. Madiso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 Marshall, G. N., Wortman, C. B., Kusulas, J. W., Hervis, L. K., & Vickers, R. R. (1992).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pessimism: Relations to fundamental dimensions of mood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67-1074.
- Norem, J. K., & Chang, E. C. (2000). A very full glass: Adding complexity to our thinking about th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optimism and pessimism research. In E. C. Chang (Ed.), *Optimism & pessimism: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347-36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55*, 44-55.
- Pita de Melo, A. M. (198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Judgement of Teaching Practice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in Rural Settings, Pennsylvania State Univ. Ph. D. dissertation.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1). *Dispositional optimism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raw data.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 E. P. (1990). *Learned helplessness*. Sydney: Griffin Press Limited.
- Sheehan N. W., & Nuttall, P. (1988).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among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37*, 92-98.
- Strutton, D., & Lumpkin, J. (1992).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coping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work environment. *Psychology Reports, 71*, 1179-1186.
- Tuckman, J., & Lorge, I.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249-260.
- Walsh, F. (2002).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2007. 8. 20 접수; 2007. 12. 10 채택)